

# 인천시립극단 Incheon City Theatre Company

## 프로필 작성

인천시립극단은 199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단된 공립극단으로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인천 지역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인천 시민 모두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극장의 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 할인혜택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가장 소외된 청소년 연극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연극 만들기'와 같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에 삶의 중심을 세우는 공립극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 ○ 2018년 공연실적

(단위 : 건, 회, 명)

구 분	계	정기공연	기획공연	청소년대상 공연	찾아가는 예술활동	해외공연	상설무대	기 타
공연건수	35	3	2	-	27	-	1	2
공연횟수	60	26	4	-	27	-	1	2
관람인원	9,520	3,358	1,392	-	3,370	-	300	1,100

※ 공연현황 총괄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35건 / 60회			9,520
2018. 1. 15(월) 한무리 Holy Life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	100
2018. 1. 16(화) 사랑의 요양원			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50
2018. 1. 17(수) 은혜요양원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60
2018. 1. 18(목)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120
2018. 1. 19(금) 남구노인복지관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120
2018. 1. 20(토) 구월여중방통중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100
2018. 1. 22(월) 복지콜노인복지센터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70
2018. 1. 23(화) 해든채노인복지센터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60
2018. 1. 24(수) 풍성하계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150
2018. 1. 25(목)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	400
2018. 1. 26(금) 선학요양원				40
2018. 1. 29(월) 인천공항소방서				80
2018. 1. 30(화) 새하늘전문요양원				50
2018. 2. 5(월) 남동구자원봉사센터				200
2018. 2. 6(화) 연수종합사회복지관				120
2018. 2. 7(수) 주안노인문화센터		150		
2018. 2. 8(목) 사랑의 쉼터 요양원		100		
2018. 2. 9(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150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3. 23(금) 남산예술센터</p>	<p>써치라이트 “너의 후일은”</p>	<p>작 : 이양구 연출 : 강량원</p> <p><b>*출연진*</b>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무대 : 임일진 조명 : 최보운 음악 : 장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안무 : 금배섭 의상 : 강기정 분장소품 : 장경숙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고동조 무대감독 : 최성국</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p> <p>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성신</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연극을 선보인다.</p> <p>인천시립극단은 4명의 극작가(이양구, 한현주, 김은성, 박상철)와 공동으로 서구의 근대가 들어온 통로 중 하나였던 우리 지역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함께 공연 소재를 찾아왔다. 이번에 선보일 &lt;너의 후일은&gt;을 시작으로 4개의 희곡들을 차례로 공연할 예정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유쾌하고 서정적으로 재구성하여 풀어낸 이야기이다. 임오군란에서 실패를 경험한 퇴역군인 ‘재군’이 고향인 인천에서 친구의 권유로 다시 한번 갑신정변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란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고군분투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패기와 열정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이 모습을 고스란히 포착한다.</p> <p>개항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전형적인 어촌 마을에 불과한 제물포항에 인천세관이 들어서고 대불호텔, 근대적인 염전, 등대가 세워지는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정겹게 다가온다. 배우들의 화술과 몸짓으로 재현하는 여러 나라 외국인들과 조선인들의 모습은 마치 가무극처럼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100여 년 전 그때로 관객들을 이끌 것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그것은 바로 가슴 벅찬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시대를 뜨겁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어느새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p>	<p>400</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4. 28 ~ 5. 6 소공연장 (8회)</p>	<p>제76회 정기공연 “너의 후일은”</p>	<p>작 : 이양구 연출 : 강량원</p> <p><b>*출연진*</b>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무대 : 임일진 조명 : 최보운 음악 : 장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안무 : 금배섭 의상 : 강기정 분장·소품 : 장경숙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고동조 무대감독 : 최성국</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성신</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연극을 선보인 다.</p> <p>인천시립극단은 4명의 극작가(이양 구, 한현주, 김은성, 박상철)와 공 동으로 서구의 근대가 들어온 통로 중 하나였던 우리 지역 인천의 역 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함께 공연 소재를 찾아왔다. 이번에 선보일 &lt;너의 후일은&gt;을 시작으로 4개의 희곡들을 차례로 공연할 예정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유쾌하고 서정적으로 재구 성하여 풀어낸 이야기이다. 임오군 란에서 실패를 경험한 퇴역군인 '재군'이 고향인 인천에서 친구의 권유로 다시 한번 갑신정변에 참가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 다. 혼란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 며 고군분투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패기와 열정을 잃지 않는 젊 은이들이 모습을 고스란히 포착한 다.</p> <p>개항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전형적인 어촌 마을에 불과한 제물 포항에 인천세관이 들어서고 대불 호텔, 근대적인 염전, 등대가 세워 지는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정겹게 다가온다. 배우들의 화술과 몸짓으 로 재현하는 여러 나라 외국인들과 조선인들의 모습은 마치 가무극처 럼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100여 년 전 그때로 관객들을 이끌 것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그것은 바로 가슴 벅찬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시대를 뜨겁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어느새 우리 시대 를 돌아보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p>	<p>1,028</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8. 5. 17(목)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b>*출연진*</b>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  <b>*스텝*</b>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	60
2018. 5. 18(금) 대무의도 청년회			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50
2018. 5. 23(수) 제 9100부대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횡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300
2018. 5. 24(목) 문갑도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50
2018. 5. 28(월) 세화종합사회복지관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60
2018. 5. 29(화) 영흥중고등학교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200
2018. 5. 30(수) 남동구노인복지관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350
2018. 5. 31(목) 송의종합사회복지관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90
2018. 6. 1(금) 동구노인문화센터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	90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6. 7(목) 순천문화예술회관</p>	<p>국공립극단페스티벌 “너의 후일은”</p>	<p>작 : 이양구 연출 : 강량원</p> <p><b>*출연진*</b>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무대 : 임일진 조명 : 최보운 음악 : 장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안무 : 금배섭 의상 : 강기정 분장소품 : 장경숙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고동조 무대감독 : 최성국</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p> <p>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성신</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연극을 선보인다.</p> <p>인천시립극단은 4명의 극작가(이양구, 한현주, 김은성, 박상철)와 공동으로 서구의 근대가 들어온 통로 중 하나였던 우리 지역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함께 공연 소재를 찾아왔다. 이번에 선보일 &lt;너의 후일은&gt;을 시작으로 4개의 희곡들을 차례로 공연할 예정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유쾌하고 서정적으로 재구성하여 풀어낸 이야기이다. 임오군란에서 실패를 경험한 퇴역군인 ‘재군’이 고향인 인천에서 친구의 권유로 다시 한번 갑신정변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란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고군분투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패기와 열정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이 모습을 고스란히 포착한다.</p> <p>개항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전형적인 어촌 마을에 불과한 제물포항에 인천세관이 들어서고 대불호텔, 근대적인 염전, 등대가 세워지는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정겹게 다가온다. 배우들의 화술과 몸짓으로 재현하는 여러 나라 외국인들과 조선인들의 모습은 마치 가무극처럼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100여 년 전 그때로 관객들을 이끌 것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그것은 바로 가슴 벅찬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시대를 뜨겁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어느새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p>	<p>700</p>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8. 6. 15(금) 야외공연장</p>	<p>금요상설공연 “유랑극단”</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b>*출연진*</b>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p> <p><b>*스텝*</b>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p> <p>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p>	<p>300</p>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8. 7. 8 송도 트라이보울</p>	<p>기획공연 “제주 많은 삼형제”</p>	<p>예술감독 : 강량원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무대 : 태극무대          조명 : 김기웅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정희          분장 어시스턴트 :          양연재 김준희          무대감독 손경희</p> <p>작 : 오일영          연출 : 최진영          연기 :          김세경 김태훈          권순정 이규호          작곡 음악감독 :          안현진          안무 : 배민우          의상소품 : 유숙희          베이스 : 이성환          드럼 : 상지훈          보컬 : 권단비</p>	<p>제주 많은 삼형제</p> <p>우리나라의 설화는 무궁무진하다. 각 지역, 어느 동네를 가도 재미나고 신기한 전설, 민담 등의 설화가 없는 곳이 없다. 그중에는 여러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설화도 존재한다. 이 삼형제 설화도 전국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물론 나의 상상력으로 여러 개의 삼형제 설화가 겹쳐지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p> <p>현재를 잘 살아가려면 과거를 잘 돌아보라는 말이 있다. 역사는 흘러가도 지나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것이다. 이 작품 또한, 설화를 통해 현대의 교훈을 되새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작품에 나오는 삼형제들은 각각의 꿈을 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주를 향해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 재주가 절정의 순간에 다다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 절정의 재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삼형제들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결국은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감복하는 것이다.</p>	<p>350</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7. 15 ~ 7. 15 소공연장 (3회)</p>	<p>기획공연 “배우열전”</p>	<p>예술감독 : 강량원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무대 : 태극무대          조명 : 김기웅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정희          분장어시스턴트 :          양연재 김준희          무대감독 손경희</p> <p><b>제주 많은 삼형제</b>          작 : 오일영          연출 : 최진영          연기 :          김세경 김태훈          권순정 이규호          작곡 음악감독 :          안현진          안무 : 배민우          의상·소품 : 유숙희          베이스 : 이성환          드럼 : 상지훈          보컬 : 권단비</p> <p><b>헤비메탈걸스</b>          작 : 최원중          연출 : 김문정          연기 : 이범우          강주희 강성숙          이수정 이신애          서창희 김희원          밴드 :          이민우(드럼)          이호준(기타)</p>	<p>제주 많은 삼형제          우리나라의 설화는 무궁무진하다. 각 지역, 어느 동네를 가도 재미나고 신기한 전설, 민담 등의 설화가 없는 곳이 없다. 그중에는 여러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설화도 존재한다. 이 삼형제 설화도 전국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물론 나의 상상력으로 여러 개의 삼형제 설화가 겹쳐지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현재를 잘 살아가려면 과거를 잘 돌아보라는 말이 있다. 역사는 흘러가도 지나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것이다. 이 작품 또한, 설화를 통해 현대의 교훈을 되새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작품에 나오는 삼형제들은 각각의 꿈을 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주를 향해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 재주가 절정의 순간에 다다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 절정의 재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삼형제들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결국은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감복하는 것이다.</p> <p>헤비메탈걸스          중소기업 식품개발부에서 정리하고 대상자에 놓이게 된 네명의 여자는 새로 오는 사장의 취미인 헤비메탈을 배워 그의 마음을 얻고자 음악학원을 찾아간다.          전직 헤비메탈밴드 멤버였던 독특한 두 남자에게 딱 한달만에 헤비메탈의 품을 배우며 겪게 되는 웃픈 풍경이 펼쳐진다.          이제 해고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선 순간은 다가오고 우스꽝스런 헤비메탈 걸스는 설악산 워크샵으로 향한다.          밴드의 한 남자는 자신들의 음악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 끝까지 버티며 지키겠다고 술에 점점 가라앉게 된다. 다른 한 명은 음악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동료에게 손을 내미는데 그는 과연 이 손을 잡을 것인가?</p>	<p>1.042</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9. 13 ~ 9. 22 소공연장 및 광장 (10회)</p>	<p>제77회 정기공연 “청소년연극페스티벌”</p>	<p><b>청소년연극페스티벌</b></p> <p>예술감독 : 강량원 무대감독 : 최성국 음향감독 : 이복행 홍보디자인 : 고동조 사진 : 유재형 영상 : 심풍식</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성신</p> <p><b>날개, 돋다</b> <b>*출연진*</b> 김문정 김태훈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작가·연출 : 이래은 조연출 : 정다솔 무대감독 : 전서아 드라마터크 : 유원식 액팅코칭 : 장재키 조명디자인 : 이동진 오퍼레이팅 : 김문숙 음악 연주 : 강하늘 무대디자인 : 오정은 의상디자인 : 안테스 오브제디자인 : 문재희</p> <p><b>외톨이들</b> <b>*출연진*</b> 서국현 이범우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p> <p><b>*스텝*</b> 작가 : 이시원 최원중 연출 : 최원중 안무가 : 강정윤 무대디자인 : 이창원 조명디자인 : 성미립 의상디자인 : 한복희 영상디자인 : 최종찬 음향디자인 : 박성진 조연출 : 김민규 이창민 조명오퍼 : 박현수</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한 축제 &lt;청소년 극 + 극장 밖 연극&gt;을 개최한다.</p> <p>이번 축제는 ‘청소년 극’과 ‘극장 밖’을 키워드로 꾸며진다. 청소년들의 삶과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는 당사자들과 어른들을 위한 실내극 2편과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극 2편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인 연극이 담아내지 못하는 세상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해 내는 청소년극, 그리고 극장을 벗어나 드넓은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색다른 형식과 주제의 공연들이 그간 인천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었기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p> <p>가장 먼저 만나볼 작품은 이래은 연출의 &lt;날개, 돋다&gt;이다. 남들과는 다르게 등에서 날개가 솟아나는 주인공 연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 연극은 “난 내가 뭔지 모르겠어!”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 애쓰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배우들의 몸과 움직임, 목소리만으로 가상의 세계를 그려나가는 환상적인 이야기 연극이다.</p> <p>또 한 편의 청소년극은 이시원작, 최원중 연출의 &lt;외톨이들&gt;이다. 청소년들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순간 휴대폰, 나이키 운동화, 머그컵, 돌멩이 등 사물로 변해버리는 코믹하면서도 슬픈 연극이다. 자신의 고민을 잘 견디고 깨끗하게 헤쳐 나가는 이 시대 청소년에게 보내는 응원의 박수와도 같은 공연이다.</p> <p>극장 밖 광장에서 진행되는 두 편의 작품 또한 매우 흥미롭다.</p> <p>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한 편에 설치된 부스에서 공연하는 &lt;광장춤이&gt;는 사운드, 미디어, 퍼포머, 공간들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p>	<p>1,416</p>

		<p><b>광장줍이</b>  <b>*출연진*</b>  서창희</p> <p><b>*스텝*</b>  구성연출 : 김지현  홍은지  세트제작 : 강경호  의상 : 이수진  프로듀서 : 최순화</p> <p><b>마사지사</b>  <b>*출연진*</b>  이수정  (객원)</p> <p><b>*스텝*</b>  연출 : 이철성  설치 조연출 :  하소정  음악 : 이정훈</p>	<p>견해온 김지현, 홍은지 구성·연출 작품이다. 관객과 함께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들을 떠올려보면서 기억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을 구성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성찰한다.</p> <p>축제의 마지막 공연은 이철성 연출의 &lt;마사지사&gt;이다. 이 작품은 스페인, 러시아, 영국, 폴란드를 투어하면서 세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온 공연이다. 관객을 종이로</p> <p>덮고 마사지를 통해 종이인간을 만든 다음, 우리에게서 태어난 종이인간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고 안아주는 예술치유공연이다.</p> <p>인천시립극단의 강량원 예술감독은 “시립극단의 정기공연과는 별개로 인천 시민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페스티벌이다. 특히 극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극장 밖 열린 광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진행하며 극장의 문턱을 낮추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각 장르의 뛰어난 연출가들과 인천시립극단 배우들의 앙상블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포부를 밝혔다.</p>	
--	--	---	---	--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12. 9 ~ 12.16 소공연장 (8회)</p>	<p>제78회 정기공연 “잔다리 건너 제물포”</p>	<p>작 : 한현주 연출 : 강량원</p> <p><b>*출연진*</b> 송예은 김태훈 최진영 김현준 김세경 정순미 이규호 이범우 서창희 권순정</p> <p><b>*스텝*</b> 무대 : 임일진 무대감독 : 최성국 조명 : 최보운 음향디자인 : 임서진 음향감독 : 이복행 움직임디자인 : 금배섭 의상 : 강기정 분장소품 : 장경숙 영상디자인 : 박태준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장소은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성신</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연극을 선보인다. 인천을 주제로 하는 창작극을 개발하여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나누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공개강좌 및 작가들과의 만남을 이어 온 인천시립극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습과는 다른 인천의 새로운 모습을 무대 위에 펼쳐 보고자 준비해왔다.</p> <p>2명의 극작가(이양구, 한현주)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뤄낸 노력의 성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진정한 인천의 연극 2편을 자신 있게 선보인다. 지난 5월에 선보인 &lt;너의 후일은&gt;에 이어 올 12월에는 두 번째 창작극 &lt;잔다리 건너 제물포&gt;를 공연하는 것이다.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품이자 제78회 정기공연인 &lt;잔다리 건너 제물포&gt;는 인천의 근대를 배경으로 한다. 일제 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본격적으로 발산되던 시기에 많은 공장과 상회, 여러 은행들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 바다를 통해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오고 갔고, 그것은 다양한 욕망의 색을 입었다. 오늘날의 선물(先物)거래소인 미주(米豆)취인소에서 업무를 보며 투자에 눈을 뜬 ‘인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잔다리 화방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이경’, 그녀들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노동자 ‘영무’, 그리고 계급 해방을 부르짖는 노동운동가 ‘석훈’ 등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로지르는 1924년의 인천을 들여다보는 작품이다.</p> <p>“무대에서 우리 근대의 풍경은 주로 경성을 배경으로 그려졌다. 개항장을 필두로 한 인천의 모습이 곧 우리의 근대였음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다 싶었다. 그 시기의 인천을 들여다보고 알아가는 일이 참 즐거웠다. 시민 강좌를 통해 함께 걸음을 내딛고 나서, 더 세세히 들여다보려 보폭을 좁혔다.”라는 한현주 작가의 말처럼 우리의 고장인 인천이 주 무대가 되어 1924년을 돌아보는 시간이기에 인천의 관객들에게 더욱 뜻깊게 다가올 것이라 기대된다.</p>	<p>914</p>

＊ 정기공연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4. 28 ~ 5. 6 소공연장 (8회)</p>	<p>제76회 정기공연 “너의 후일은”</p>	<p>작 : 이양구 연출 : 강량원</p> <p><b>*출연진*</b>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무대 : 임일진 조명 : 최보윤 음악 : 장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안무 : 금배섭 의상 : 강기정 분장·소품 : 장경숙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고동조 무대감독 : 최성국</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p> <p>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성신</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연극을 선보인다.</p> <p>인천시립극단은 4명의 극작가(이양구, 한현주, 김은성, 박상철)와 공동으로 서구의 근대가 들어온 통로 중 하나였던 우리 지역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함께 공연 소재를 찾아왔다. 이번에 선보일 &lt;너의 후일은&gt;을 시작으로 4개의 희곡들을 차례로 공연할 예정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유쾌하고 서정적으로 재구성하여 풀어낸 이야기이다. 임오군관에서 실패를 경험한 퇴역군인 ‘재군’이 고향인 인천에서 친구의 권유로 다시 한번 갑신정변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란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고군분투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패기와 열정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이 모습을 고스란히 포착한다.</p> <p>개항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전형적인 어촌 마을에 불과한 제물포항에 인천세관이 들어서고 대불호텔, 근대적인 염전, 등대가 세워지는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정겹게 다가온다. 배우들의 화술과 몸짓으로 재현하는 여러 나라 외국인들과 조선인들의 모습은 마치 가무극처럼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100여 년 전 그때로 관객들을 이끌 것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그것은 바로 가슴 벅찬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시대를 뜨겁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어느새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p>	<p>1,028</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9. 13 ~ 9. 22 소공연장 및 광장 (10회)</p>	<p>제77회 정기공연 “청소년연극페스티벌”</p>	<p><b>청소년연극페스티벌</b></p> <p>예술감독 : 강량원 무대감독 : 최성국 음향감독 : 이복행 홍보디자인 : 고동조 사진 : 유재형 영상 : 심풍식</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성신</p> <p><b>날개, 돋다</b> <b>*출연진*</b> 김문정 김태훈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작가·연출 : 이래은 조연출 : 정다솔 무대감독 : 전서아 드라마틱크 : 유원식 액팅코칭 : 장재키 조명디자인 : 이동진 오퍼레이팅 : 김문숙 음악 연주 : 강하늘 무대디자인 : 오정은 의상디자인 : 안테스 오브제디자인 : 문재희</p> <p><b>외톨이들</b> <b>*출연진*</b> 서국현 이범우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희원 황혜원</p> <p><b>*스텝*</b> 작가 : 이시원 최원중 연출 : 최원중 안무가 : 강정윤 무대디자인 : 이창원 조명디자인 : 성미림 의상디자인 : 한복희 영상디자인 : 최종찬 음향디자인 : 박성진 조연출 : 김민규 이창민 조명오퍼 : 박현수</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한 축제 &lt;청소년 극 + 극장 밖 연극&gt;을 개최한다.</p> <p>이번 축제는 ‘청소년 극’과 ‘극장 밖’을 키워드로 꾸며진다. 청소년들의 삶과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는 당사자들과 어른들을 위한 실내극 2편과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극 2편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인 연극이 담아내지 못하는 세상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해 내는 청소년극, 그리고 극장을 벗어나 드넓은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색다른 형식과 주제의 공연들이 그간 인천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었기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p> <p>가장 먼저 만나볼 작품은 이래은 연출의 &lt;날개, 돋다&gt;이다. 남들과는 다르게 등에서 날개가 솟아나는 주인공 연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 연극은 “난 내가 뭔지 모르겠어!”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 애쓰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배우들의 몸과 움직임, 목소리만으로 가상의 세계를 그려나가는 환상적인 이야기 연극이다.</p> <p>또 한 편의 청소년극은 이시원작, 최원중 연출의 &lt;외톨이들&gt;이다. 청소년들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순간 휴대폰, 나이키 운동화, 머그컵, 돌멩이 등 사물로 변해버리는 코믹하면서도 슬픈 연극이다. 자신의 고민을 잘 견디고 곳 곳하게 헤쳐 나가는 이 시대 청소년에게 보내는 응원의 박수와도 같은 공연이다.</p> <p>극장 밖 광장에서 진행되는 두 편의 작품 또한 매우 흥미롭다.</p> <p>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한 편에 설치된 부스에서 공연하는 &lt;광장춤이&gt;는 사운드, 미디어, 퍼포머, 공간들의 관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온 김지현, 홍은지 구성·연출</p>	<p>1,416</p>

		<p><b>광장줍이</b> *출연진* 서창희</p> <p><b>*스텝*</b> 구성연출 : 김지현 홍은지 세트제작 : 강경호 의상 : 이수진 프로듀서 : 최순화</p> <p><b>마사지사</b> *출연진* 이수정 (객원)</p> <p><b>*스텝*</b> 연출 : 이철성 설치 조연출 : 하소정 음악 : 이정훈</p>	<p>작품이다. 관객과 함께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들을 떠올려보면서 기억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을 구성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성찰한다.</p> <p>축제의 마지막 공연은 이철성 연출의 &lt;마사지사&gt;이다. 이 작품은 스페인, 러시아, 영국, 폴란드를 투어하면서 세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진 공연이다. 관객을 종이로</p> <p>덮고 마사지를 통해 종이인간을 만든 다음, 우리에게서 태어난 종이인간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마주고 안아주는 예술치유공연이다.</p> <p>인천시립극단의 강량원 예술감독은 “시립극단의 정기공연과는 별개로 인천 시민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페스티벌이다. 특히 극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극장 밖 열린 광장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진행하며 극장의 문턱을 낮추는 시간이 될 것이다. 각 장르의 뛰어난 연출가들과 인천시립극단 배우들의 앙상블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포부를 밝혔다.</p>	
--	--	---	---	--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12. 9 ~ 12.16 소공연장 (8회)</p>	<p>제78회 정기공연 “잔다리 건너 제물포”</p>	<p>작 : 한현주 연출 : 강량원</p> <p><b>*출연진*</b> 송예은 김태훈 최진영 김현준 김세경 정순미 이규호 이범우 서창희 권순정</p> <p><b>*스텝*</b> 무대 : 임일진 무대감독 : 최성국 조명 : 최보윤 음향디자이너 : 임서진 음향감독 : 이복행 움직임디자이너 : 금배섭 의상 : 강기정 분장소품 : 장경숙 영상디자이너 : 박태준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이너 : 장소은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성신</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연극을 선보인다. 인천을 주제로 하는 창작극을 개발하여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나누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공개강좌 및 작가들과의 만남을 이어 온 인천시립극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습과는 다른 인천의 새로운 모습을 무대 위에 펼쳐 보고자 준비해왔다.</p> <p>2명의 극작가(이양구, 한현주)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뤄낸 노력의 성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진정한 인천의 연극 2편을 자신 있게 선보인다. 지난 5월에 선보인 &lt;너의 후일은&gt;에 이어 올 12월에는 두 번째 창작극 &lt;잔다리 건너 제물포&gt;를 공연하는 것이다.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품이자 제78회 정기공연인 &lt;잔다리 건너 제물포&gt;는 인천의 근대를 배경으로 한다. 일제 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본격적으로 발산되던 시기에 많은 공장과 상회, 여러 은행들은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 바다를 통해 수많은 물자와 사람이 오고 갔고, 그것은 다양한 욕망의 색을 입었다. 오늘날의 선물(先物)거래소인 미주(米豆)취인소에서 업무를 보며 투자에 눈을 뜬 ‘인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잔다리 화방에서 일하지만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이경’, 그녀들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노동자 ‘영무’, 그리고 계급 해방을 부르짖는 노동운동가 ‘석훈’ 등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로지르는 1924년의 인천을 들여다보는 작품이다.</p> <p>“무대에서 우리 근대의 풍경은 주로 경성을 배경으로 그려졌다. 개항장을 필두로 한 인천의 모습이 곧 우리의 근대였음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다 싶었다. 그 시기의 인천을 들여다보고 알아가는 일이 참 즐거웠다. 시민 강좌를 통해 함께 걸음을 내딛고 나서, 더 세세히 들여다보려 보폭을 좁혔다.”라는 한현주 작가의 말처럼 우리의 고장인 인천이 주 무대가 되어 1924년을 돌아보는 시간이기에 인천의 관객들에게 더욱 뜻깊게 다가올 것이라 기대된다.</p>	<p>914</p>

\* 기획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8. 7. 8 송도 트라이보울</p>	<p>기획공연 “제주 많은 삼형제”</p>	<p>예술감독 : 강량원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무대 : 태극무대                      조명 : 김기웅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정희                      분장 어시스턴트 :                      양연재 김준희                      무대감독 손경희</p> <p>작 : 오일영                      연출 : 최진영                      연기 :                      김세경 김태훈                      권순정 이규호                      작곡 음악감독 :                      안현진                      안무 : 배민우                      의상소품 : 유숙희                      베이스 : 이성환                      드럼 : 상지훈                      보컬 : 권단비</p>	<p>제주 많은 삼형제</p> <p>우리나라의 설화는 무궁무진하다. 각 지역, 어느 동네를 가도 재미나고 신기한 전설, 민담 등의 설화가 없는 곳이 없다. 그중에는 여러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설화도 존재한다. 이 삼형제 설화도 전국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물론 나의 상상력으로 여러 개의 삼형제 설화가 겹쳐지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p> <p>현재를 잘 살아가려면 과거를 잘 돌아보라는 말이 있다. 역사는 흘러가도 지나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것이다. 이 작품 또한, 설화를 통해 현대의 교훈을 되새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작품에 나오는 삼형제들은 각각의 꿈을 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주를 향해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 재주가 절정의 순간에 다다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 절정의 재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삼형제들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결국은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감복하는 것이다.</p>	<p>350</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7. 15 ~ 7. 15 소공연장 (3회)</p>	<p>기획공연 “배우열전”</p>	<p>예술감독 : 강량원          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무대 : 태극무대          조명 : 김기웅          음향 : 김현산          분장 : 이정희          분장어시스턴트 : 양연재 김준희          무대감독 손경희</p> <p><b>제주 많은 삼형제</b>          작 : 오일영          연출 : 최진영          연기 : 김세경 김태훈 권순정 이규호          작곡 음악감독 : 안현진          안무 : 배민우          의상·소품 : 유숙희          베이스 : 이성환          드럼 : 상지훈          보컬 : 권단비</p> <p><b>헤비메탈걸스</b>          작 : 최원중          연출 : 김문정          연기 : 이범우 강주희 강성숙 이수정 이신애 서창희 김희원          밴드 : 이민우(드럼) 이호준(기타)</p>	<p>제주 많은 삼형제          우리나라의 설화는 무궁무진하다. 각 지역, 어느 동네를 가도 재미나고 신기한 전설, 민담 등의 설화가 없는 곳이 없다. 그중에는 여러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설화도 존재한다. 이 삼형제 설화도 전국 곳곳에서 쉽게 발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물론 나의 상상력으로 여러 개의 삼형제 설화가 겹쳐지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현재를 잘 살아가려면 과거를 잘 돌아보라는 말이 있다. 역사는 흘러가도 지나간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것이다. 이 작품 또한, 설화를 통해 현대의 교훈을 되새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작품에 나오는 삼형제들은 각각의 꿈을 위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재주를 향해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 재주가 절정의 순간에 다다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 절정의 재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삼형제들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결국은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감복하는 것이다.</p> <p>헤비메탈걸스          중소기업 식품개발부에서 정리하고 대상자에 놓이게 된 네명의 여자는 새로 오는 사장의 취미인 헤비메탈을 배워 그의 마음을 얻고자 음악학원을 찾아간다.          전직 헤비메탈밴드 멤버였던 독특한 두 남자에게 딱 한달만에 헤비메탈의 품을 배우며 겪게 되는 웃픈 풍경이 펼쳐진다.          이제 해고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선 순간은 다가오고 우스꽝스런 헤비메탈 걸스는 설악산 워크샵으로 향한다.          밴드의 한 남자는 자신들의 음악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 끝까지 버티며 지키겠다고 술에 점점 가라앉게 된다. 다른 한 명은 음악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동료에게 손을 내미는데 그는 과연 이 손을 잡을 것인가?</p>	<p>1.042</p>

※ 찾아가는 시립극단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2018. 1. 15(월) 한무리 Holy Life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출연진*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  *스텝*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100
2018. 1. 16(화) 사랑의 요양원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	50
2018. 1. 17(수) 은혜요양원			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60
2018. 1. 18(목)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횡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120
2018. 1. 19(금) 남구노인복지관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120
2018. 1. 20(토) 구월여중방통중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100
2018. 1. 22(월) 복지콜노인복지센터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70
2018. 1. 23(화) 해든채노인복지센터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60
2018. 1. 24(수) 풍성하게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150
2018. 1. 25(목)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400
2018. 1. 26(금) 선학요양원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	40
2018. 1. 29(월) 인천공항소방서				80
2018. 1. 30(화) 새하늘전문요양원				50
2018. 2. 5(월) 남동구자원봉사센터				200
2018. 2. 6(화) 연수종합사회복지관				120
2018. 2. 7(수) 주안노인문화센터				150
2018. 2. 8(목) 사랑의 쉼터 요양원		100		
2018. 2. 9(금) 인천해역방어사령부		150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18. 5. 17(목)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공연 “유랑극단”	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  <b>*출연진*</b>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  <b>*스텝*</b>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	60
2018. 5. 18(금) 대무의도 청년회			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50
2018. 5. 23(수) 제 9100부대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횡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300
2018. 5. 24(목) 문갑도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50
2018. 5. 28(월) 세화종합사회복지관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60
2018. 5. 29(화) 영흥중고등학교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200
2018. 5. 30(수) 남동구노인복지관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350
2018. 5. 31(목) 송의종합사회복지관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90
2018. 6. 1(금) 동구노인문화센터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	90

\* 해외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건 / 회			명

※ 기타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8. 3. 23(금) 남산예술센터</p>	<p>써치라이트 “너의 후일은”</p>	<p>작 : 이양구 연출 : 강량원</p> <p><b>*출연진*</b>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무대 : 임일진 조명 : 최보운 음악 : 장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안무 : 금배섭 의상 : 강기정 분장·소품 : 장경숙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고동조 무대감독 : 최성국</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성신</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연극을 선보인다.</p> <p>인천시립극단은 4명의 극작가(이양구, 한현주, 김은성, 박상철)와 공동으로 서구의 근대가 들어온 통로 중 하나였던 우리 지역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함께 공연 소재를 찾아왔다. 이번에 선보일 &lt;너의 후일은&gt;을 시작으로 4개의 희곡들을 차례로 공연할 예정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유쾌하고 서정적으로 재구성하여 풀어낸 이야기이다. 임오군란에서 실패를 경험한 퇴역군인 ‘재군’이 고향인 인천에서 친구의 권유로 다시 한번 갑신정변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란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고군분투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패기와 열정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이 모습을 고스란히 포착한다.</p> <p>개항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전형적인 어촌 마을에 불과한 제물포항에 인천세관이 들어서고 대불호텔, 근대적인 염전, 등대가 세워지는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정겹게 다가온다. 배우들의 화술과 몸짓으로 재현하는 여러 나라 외국인들과 조선인들의 모습은 마치 가무극처럼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100여 년 전 그때로 관객들을 이끌 것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그것은 바로 가슴 벅찬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시대를 뜨겁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어느새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p>	<p>400</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18. 6. 7(목) 순천문화예술회관</p>	<p>국공립극단페스티벌 “너의 후일은”</p>	<p>작 : 이양구 연출 : 강량원</p> <p><b>*출연진*</b>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최진영 정순미 김문정 김태훈 이수정 서창희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p> <p><b>*스텝*</b> 무대 : 임일진 조명 : 최보운 음악 : 장영규 음향감독 : 이복행 안무 : 금배섭 의상 : 강기정 분장소품 : 장경숙 사진 : 유재형 홍보디자인 : 고동조 무대감독 : 최성국</p> <p>훈련장 : 이완희 단무장 : 김화산 조연출 : 손경희</p> <p>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 객원홍보 : 조성신</p>	<p>인천시립극단(예술감독 강량원)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창작극 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연극을 선보인다.</p> <p>인천시립극단은 4명의 극작가(이양구, 한현주, 김은성, 박상철)와 공동으로 서구의 근대가 들어온 통로 중 하나였던 우리 지역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서 함께 공연 소재를 찾아왔다. 이번에 선보일 &lt;너의 후일은&gt;을 시작으로 4개의 희곡들을 차례로 공연할 예정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유쾌하고 서정적으로 재구성하여 풀어낸 이야기이다. 임오군란에서 실패를 경험한 퇴역군인 ‘재군’이 고향인 인천에서 친구의 권유로 다시 한번 갑신정변에 참가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란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고군분투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향한 패기와 열정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이 모습을 고스란히 포착한다.</p> <p>개항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전형적인 어촌 마을에 불과한 제물포항에 인천세관이 들어서고 대불호텔, 근대적인 염전, 등대가 세워지는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정겹게 다가온다. 배우들의 화술과 몸짓으로 재현하는 여러 나라 외국인들과 조선인들의 모습은 마치 가무극처럼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100여 년 전 그때로 관객들을 이끌 것이다.</p> <p>연극 &lt;너의 후일은&gt;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그것은 바로 가슴 벅찬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시대를 뜨겁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어느새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p>	<p>700</p>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18. 6. 15(금) 야외공연장</p>	<p>금요상설공연 “유랑극단”</p>	<p>예술감독 : 강량원 연출 : 이완희</p> <p><b>*출연진*</b>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최진영 정순미 김태훈 황혜원 권순정</p> <p><b>*스텝*</b> 무대 : 박재범 음향 : 김현산 분장 : 손진숙 단무장 : 김화산 사무단원 : 이옥희 이돈형</p>	<p>유랑극단은 설명역을 맡은 해설자가 나와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라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올라온 사람들을 즉석캐스팅을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극이 시작된다.</p> <p>극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단장역을 맡은 이세상이 단원들은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단원들이 모여서 연극을 하다가 일본의 황포에 의해 공연은 막을 내리게 되고 여관에서조차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유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현대극장의 차사장을 만나게 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차사장에게 연극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다.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으로 호황을 누릴 때 작가인 오소공은 단장에게 개혁적인 연극을 하자고 제안하게 되고, 단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민족의 사상과 독립을 주제로 한 작품은 일본 형사에 의해 중단이 되며 단장은 구속되고 작품의 작가인 오소공은 모진 고문 받고 풀려 나오게 된다. 단장이 빠진 극단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부단장을 임시 단장으로 추대하며 극단을 유지해 간다. 그러나 중심을 잃은 극단은 서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아지고 관객들 비위나 맞추는 삼류 연극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 급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농악대의 소리를 듣고 오소공은 민속놀이에 우리의 사상과 민족정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민속 가면극을 만들게 된다. 일본의 검열을 피한 작품은 대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이 쇠약해진 오소공은 결국 쓰러지게 되고 단원들의 아리랑 노래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설명역은 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각자의 소감을 들으며 극은 끝이 난다.</p>	<p>300</p>

## 시립극단 단원명단

예술감독 : 강량원

훈 련 장 : 이완희

단 무 장 : 김화산

조 연 출 : 손경희

사 무 : 이옥희, 이돈형

수 석 : 서국현, 차광영, 정순미

제1차석 : 강주희, 강성숙, 김태훈

제2차석 : 이범우, 심영민, 송예은

상임단원 : 김세경, 김현준, 최진영, 김문정, 이수정, 서창희,  
김희원, 황혜원, 권순정, 이신애, 이규호

※ 2018년 12월 31일 기준